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 사회적 성과

이원경 | 세종대학교 | wklee@sejong.ac.kr

I. 서론

1978년 12월에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안된 개혁·개방은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중국은 계획경제(명령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이행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구보너스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성장에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높은 저축률로 인해 국내에 높은 투자율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중국은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대만 등)가 성장 시에 겪었던 경험과 공통적인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였다는 점에서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와 다른 성장 과정을 겪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의 주요 요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및 제도 변혁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1980년대 점진적 혹은 유연한 변화로 개혁·개방을 추진했으나, 1990년대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 변화가 신속히 요구되었을 때에는 급격한 변화도 받아들였다. 1980년대의 변화는 명령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 트랙으로 대표되며, 농민, 도시민, 관료, 지식인 등 모두가 개혁의 이익을 향유 하도록 하는 ‘패자 없는’ 제도 변화였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대중적 지지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초 거시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국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급진적인 기업 개혁, 재정 및 조세 개혁, 은행을 포함한 금융 개혁을 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1990년대 ‘폐자 있는’ 개혁은 금융 및 재정 시스템의 확립과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당시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2000년대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 제도로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중국은 30년이라는 장기간의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셋째,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외 개방도가 급증하였고, 수출 증가로 제조업 생산이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의 급격한 대외 개방은 전 세계의 생산 가치 사슬을 변화시켰고, 전 세계 소비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대외 개방과 제조업 생산 확대는 중국이 2000년대에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고, 1990년대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급증했던 실업률을 다시 ‘완전 고용’ 상태로 안정화시켰다.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북한도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5·30조치)’을 발표하며 개혁·개방에 더욱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2016년 국제사회가 도입한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북 경제제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핵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김정은 집권 후 추진했던 개혁·개방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본문에서는 성공적인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각 경제·사회 지표를 활용하여 회고함으로써, 향후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의지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하는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을 잠재하는 성과를 예상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79년 전후¹⁾ 경제·사회 지표 데이터와 최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혁·개방이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미친 성과를 확인한다. 사용된 경제·사회 지표는 인구, 소득, 직업, 교육, 내구 소비, 식량, 건강, 보건, 에너지, 교통, 통신, 전력, 인프라, 여가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외에도 경제·사회적 성과에 관해 더욱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개혁·개방이 중국 인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으로 중국 인민의 생활을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1) 개혁·개방 시기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1978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가용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1979년 데이터를 활용한다. 다만, 개혁·개방 시기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가장 가까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한다.

II.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제 사회적 성과

1. 인구

중국의 인구는 개혁·개방 직후인 1978년에 12.0%라는 높은 자연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하였으나, 1995년부터 빠르게 감소하였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로 정의된다.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자연증가율을 1990년에는 14.4%, 2000년에는 7.6%, 2010년에는 4.8%, 2020년에는 1.5%를 각각 기록하며, 1990년대에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이러한 감소 추세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의 감소는 주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그림 1]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978년에 2.7명이었으나 1993년에는 1.7명을 기록하여, 개혁·개방 이후 약 15년 동안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출산율 변화는 1980년에 시행된 한 자녀 정책 등의 인구 정책보다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던 것처럼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출산 욕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중국 도시 여성의 높은 노동 참여,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 건강과 피임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 등이 출산율 감소의 주요인으로 평가된다.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약 5년간은 합계출산율이 약간 상승했으나,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명을 기록하여 중국은 같은 해 일본의 합계출산율(1.3명)보다 낮아졌다.

한편, 중국의 사망률은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78년 인구 천명당 6.3명에서 2022년 7.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조사망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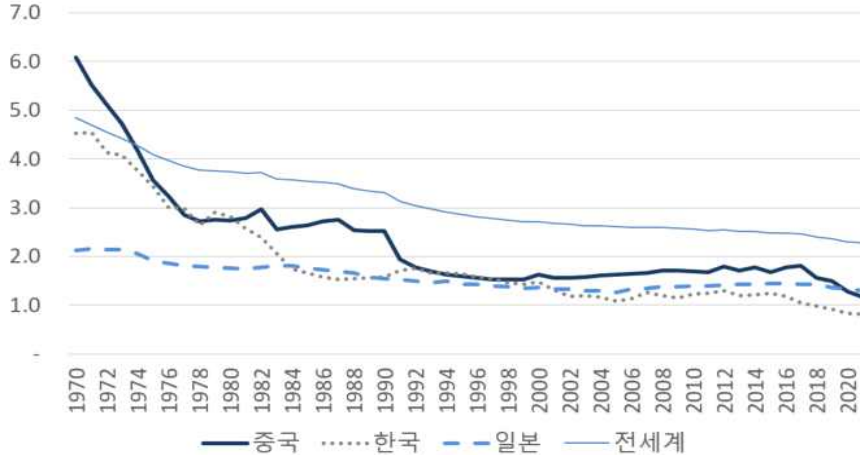
<표 1> 생명률 - 조출생률 및 조사망률

(단위: ‰)

연도	조출생률 (A)	조사망률 (B)	자연증가율 (A) - (B)
1978	18.3	6.3	12.0
1990	21.1	6.7	14.4
2000	14.0	6.5	7.6
2010	11.9	7.1	4.8
2020	8.5	7.1	1.5
2022	6.8	7.4	-0.6

자료: 「중국통계연감」(2022).

[그림 1] 합계출산율



주: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일생 동안 출산할 법한 아이의 수를 표현.
자료: World Bank.

조사망률의 감소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개혁·개방 이전부터 중국의 위생, 보건, 식량 문제의 개선으로 인해 중국의 사망률은 이미 일반적인 전통사회 사망률(20~40명)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약 17년 동안(1979~95년) 출생률과 사망률 간에는 인구 천명당 10명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인구수 역시 <표 2>와 같이 연평균 1.2~1.6%로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약 22년 후인 2000년부터 출생률과 사망률 간 격차는 인구 천명당 7.6명으로 줄어들면서, 인구 증가율도 1% 이하로 감소했다. 개혁·개방 약 54년 후인 2022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인구수가 감소했다.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중국의 도시 인구 비중은 급증했다. 도시화는 농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현대의 산업 및 서비스 직종으로 이동하고, 도시에서의 군집화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끌기 때문에 경제개발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1979년 19%였는데,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도시화도 빠르게 진전되었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전 세계 평균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중국의 도시 인구 비중이 65%를 기록하며(표 2 참조),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도시화율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정상 범주에 속하지만, 한국(81%), 일본(92%), 미국(83%)과 같은 고소득 국가의 도시화율²⁾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2〉 인구수 및 도농 인구분포

(단위: 만명, %)

연도	총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인구수	연평균 증가율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1975	92,420	2.2	16,030	17.3	76,390	82.7
1979	97,542	1.4	18,495	19.0	79,047	81.0
1980	98,705	1.2	24,017	23.0	80,340	77.0
1985	105,851	1.4	29,540	26.2	83,164	73.8
1990	114,333	1.6	34,169	28.5	85,681	71.5
1995	121,121	1.2	43,748	34.8	82,038	65.2
2000	126,743	0.9	54,283	41.8	75,705	58.2
2005	130,756	0.6	64,512	48.3	68,938	51.7
2010	134,091	0.5	76,738	55.8	60,908	44.3
2015	138,326	0.6	88,426	62.7	52,582	37.3
2020	141,212	0.4	92,071	65.2	49,104	34.8
2021	141,260	0.0	91,425	64.7	49,835	35.3
2022	141,175	-0.1	92,071	65.2	49,104	34.8

자료: 「중국통계연감」(2022), World Bank.

〈표 3〉 기대수명

(단위: 세)

	총 인구 수명	남성 수명	여성 수명
1979	63.9	61.7	66.1
1980	64.4	62.2	66.7
1985	66.6	64.3	69.1
1990	68.0	65.7	70.4
1995	70.0	67.8	72.3
2000	71.9	69.7	74.2
2005	73.0	70.8	75.3
2010	74.8	72.4	77.4
2015	76.3	73.6	79.4
2020	77.9	75.4	80.9

주: 1960~200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World bank 자료를 2005~202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중국통계연감」(2022)자료를 이용.

중국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의 지표 중 하나로 기대수명 추세를 참고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의 기대수명은 1960년대에 전 세계의 의료, 보건, 위생의 개선으로 이미 상당히 증가했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9년에 63.9세였

2) 각 국가별 도시화율 수치는 2022년 기준이다.

던 기대수명은 2020년에는 77.9세로 증가했다(표 3 참조). 이러한 중국의 평균 기대수명(77.9세)은 2020년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72세)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 기대수명(80.5세)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기대수명 증가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공공보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둘째,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양상태 개선, 생활환경 개선, 교육수준 향상 등이 기대수명 증가에 기여했다. 셋째, 중국은 예방의학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중국의 기대수명을 지속해서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소득

개혁·개방으로 인해 중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장기간 유지된 높은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8~2000년까지는 인구 증가의 둔화로 1인당 GDP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1952~1978년까지는 6%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0~2010년에는 10.5%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1952~1978년까지는 1.9%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0~2010년에는 0.6%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1952~1978년까지 연평균 4.1%였던 1인당 GDP 성장률이 2000~2010년에는 9.9%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2]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의 특징이 나타난다. 1980년대에 연평균 8.3%이었던 중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9.4%로 증가했고, 2000년대에는 더 증가하여 9.9%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2000년 대에 10년 동안 중국의 성장이 개혁·개방 후 22년 간 성장에 비해서도 고성장 국면을 유지했던 이유는 중국이 1990년대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했을 뿐 아니라, 2001년 WTO 가입으로 세계분업구조에 편입되면서 개방의 이익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성장은 개혁·개방 약 30년 후부터는 다소 둔화되어 2011~2017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이 6.6%로 하락하였다.³⁾

한편, 이러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계소득도 급증하여, 중국인들은 개혁·개방 이후 풍요로운 삶을 향유했다. <표 4>에서와 같이 농촌과 도시 가계소득은 빠르게 증가하여, 1978년부터 2022년까지 1인당 농촌 가계소득은 연평균 7.7%로 증가하여 약 27배가 되었고, 1인당 도시 가계소득은 연평균 7.2%로 증가하여 약 22배가 되었다. 2022년 달러 기준으로 중국의

3)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유행 등의 특수 상황이 존재하므로 2010년대 성장률은 2011~2017년 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림 2] 1인당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World Bank.

<표 4> 1인당 실질 가계소득

연도	농촌의 1인당 실질 가계 소득		도시의 1인당 실질 가계 소득	
	가격(위안)	연평균 증가율(%)	가격(위안)	연평균 증가율(%)
1978	750		2,276	
1985	1,918	14.4	3,650	7.0
2009	6,139	5.0	20,337	7.4
2015	10,772	9.8	31,790	7.7
2020	16,948	9.5	43,363	6.4
2021	19,025	12.3	47,647	9.9
2022	20,014	5.2	48,993	2.8

주: 1) 2015년 가격 기준으로 실질 소득을 계산함.

2)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Barry Naughton(2018)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치를 제시하였고, 2020년~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중국통계연감」(2022)의 CPI데이터와 명목 소득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가 실질 소득을 계산함.

자료: 중국통계연감(2022); Barry Naughton(2018).

1인당 농촌 가계소득은 3천달러(20,014위안), 1인당 도시 가계소득은 7천 4백달러(48,993위안)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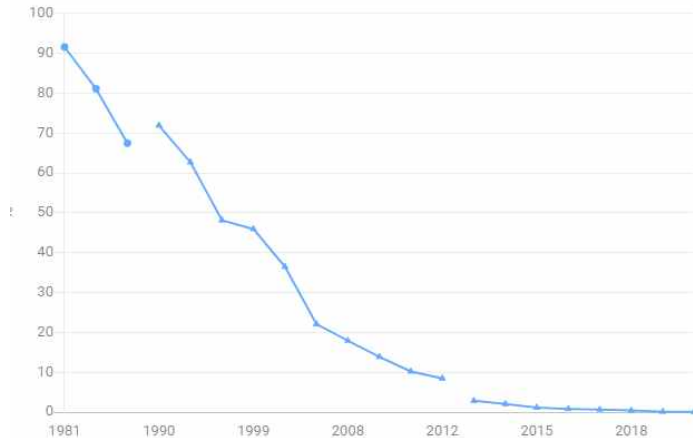
중국의 실질 가계소득 증가와 함께 빈곤층은 급격히 감소했으나, 소득 분배 측면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 빈곤이 줄어든 반면, 상대적 빈곤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농촌 빈곤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86년부터 중국은 빈곤퇴치를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하고 취약한 현을 국가 특수 빈곤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 농촌 개발 지원과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1986~1993년 기간 173개의 현을 특수 빈곤지역으로 지정했고, 2000년에는 이를 529개로 확대했으며, 2011년부터는 679개로 확대했다.⁴⁾

[그림 3]은 중국의 빈곤 인구 비중을 나타낸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1년, 중국의 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 92%에 달했으나,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정책으로 인해 1990년에는 빈곤 인구 비중이 72%로 감소했다. 1990년대의 적극적인 시장경제 이행정책과 2001년 WTO 가입으로 중국은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2002년 빈곤 인구 비중은 37%, 2010년에는 13%, 2020년에는 0.1%로 감소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불평등도 확대되었다.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로 변화되었다. <표 5>에서와 같이, 개혁·개방 초기인 1983년 중국의 지니(Gini) 계수는 0.28로,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 하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중하위 경제 국가들의 지니 계수보다

[그림 3] 빈곤 인구 비중



주: 위 그림의 빈곤 인구 비중은 2017년 PPP기준으로 1일 수입이 2.15달러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자료: UNDP.

<표 5> 중국의 GINI 계수

년도	1978	1983	1993	2009	2015	2020	2022
지니계수	0.32	0.28	0.40	0.49	0.46	0.47	0.47

주: UNDP의 자료는 1990년부터 이용 가능하며, 아래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
자료: "China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2016), 「중국통계연감」(2022).

4) 홍정훈(2021).

훨씬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도시경제의 성장 가속화를 추동하며,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불평등의 증가가 2009년까지 지속되어 2009년에는 지니 계수가 0.49를 기록하게 되었다. 2009년 이후 불평등이 다소 감소했지만,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라고 여겨지는 인도(0.34), 인도네시아(0.38), 태국(0.43), 멕시코(0.47) 등 국가들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불평등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은 도시 및 농촌 내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도농 간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 전체의 불평등은 개별 농촌 내 혹은 도시 내 불평등보다도 더 크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에서는 자본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소득은 노동으로부터 나왔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평등 수준이 유지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자본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고, 소득원이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소득원에 대한 접근성이 경제주체마다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즉, 개혁·개방 이후에는 자본, 기술, 새로운 경제적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경제주체마다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소득을 결정하는 임금 격차가 커지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교육 수준 차이, 산업 구조의 변화, 소득 유형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이다.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도시와 농촌은 모두 개혁·개방 이후 소득 규모의 급증을 경험했다. 특히 도시의 소득 증가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도시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90년의 316달러에서 2022년의 7,327달러로 23배 증가했다. 농촌의 경우 1인당 가처분 소득이 1990년의 207달러에서 2022년의 2,993달러로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속도의 차이로 인해 1990년 도시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농촌의 1.5배였으나, 2022년에는 2.4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도농 간 소득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도시경제 내에서는 자본에 대한 수익성 증가와 접근성이 커져 1인당 소득에서 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도시 1인당 가처분 소득에서 자본 소득은 1990년에 1%(3달러)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11%(779달러)로 증가했다. 이처럼 1990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의 자본 소득은 260배로 빠르게 증가해 도시 소득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도시의 노동 소득도 빠르게 증가했으나, 자본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는 낮아 노동 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었다. 노동 소득이 도시 1인당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6%(240달러)에서 2022년 60%(4,397달러)로 감소했다.

농촌 내에서는 자본 소득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약간 감소한 반면, 노동 소득의 비중은 증가했다. 농촌에서의 농업 및 가내 수공업 등의 사업 소득 비중이

〈표 6〉 중국 도시 및 농촌의 유형별 1인당 당해 소득

(단위: 달러, (%))

연도	도시					농촌				
	가처분 소득	노동 소득	사업 소득	자본 소득	이전 소득	가처분 소득	노동 소득	사업 소득	자본 소득	이전 소득
1990	316	240	5	3	69	207	29	171	7	-
	-	(76)	(1)	(1)	(22)		(14)	(82)	(4)	
2000	759	541	30	16	174	380	85	272	5	18
	-	(71)	(4)	(2)	(23)		(22)	(72)	(1)	(5)
2010	2,823	2,025	253	77	752	1,199	359	729	30	81
	-	(72)	(9)	(3)	(27)		(30)	(61)	(2)	(7)
2020	6,355	3,825	683	671	1,177	2,484	1,011	881	61	531
	-	(60)	(11)	(11)	(19)		(41)	(35)	(2)	(21)
2022	7,327	4,397	830	779	1,321	2,993	1,256	1,036	76	625
	-	(60)	(11)	(11)	(18)		(42)	(35)	(3)	(21)

주: 1) 각 숫자는 중국통계연감의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계산한 것이고, ()안의 숫자는 가처분소득에서 각 유형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 1990년의 데이터부터 이용 가능하므로, 〈표 6〉은 1990년부터의 수치를 제공.
자료: 「중국통계연감」(1995; 2006; 2009; 2013; 2022).

2022년에도 도시에 비해 여전히 크지만, 그 비중은 1990년에 비해서는 작아졌다. 구체적으로, 농촌의 자본 소득 비중은 1990년 4%(7달러)에서 2022년 3%(76달러)로 감소했고, 농업 및 가내 수공업 등의 사업 소득 비중은 1990년 82%(171달러)에서 2022년 35%(1,036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 소득의 비중은 1990년 14%(29달러)에서 2022년 42%(1,256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농촌의 임금 상승으로 노동 소득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43배로 급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 기간 자본 소득이 11배 증가하여 도시(260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소득 증가 속도가 낮은 요인도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

3. 인적 자본: 고용 및 교육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속화했다. 중국은 계획경제 시기에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중공업뿐 아니라 경공업, 상업, 요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2차 및 3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조정으로 인해 중국의 고용구조도 변화되었다. 〈표 7〉에 따르면, 1978년 중국의 총취업자 수는 4억명이었으며, 이 중 1차 산업 종사자가 70.5%, 2차 산업 종사자가 17.3%, 3차 산업 종사자가 12.2%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총취업자 수가 7억 5천명으로 증가하였고,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23.6%로 크게 감소한

〈표 7〉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 수의 변화

		1978	1990	2000	2010	2020
취업자 수 (억명)		4.0	6.5	7.1	7.6	7.5
1차 산업	(억명)	2.8	3.9	3.6	2.8	1.8
	(%)	(70.5)	(59.6)	(50.0)	(36.7)	(23.6)
2차 산업	(억명)	0.7	1.4	1.6	2.2	2.2
	(%)	(17.3)	(21.2)	(22.5)	(28.7)	(28.7)
3차 산업	(억명)	0.5	1.2	2.0	2.6	3.6
	(%)	(12.2)	(18.3)	(27.5)	(34.6)	(47.7)

자료: 「중국통계연감」(1999: 2001: 2011: 2016: 2022).

반면, 2차 산업은 28.7%, 3차 산업은 47.7%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3차 산업 고용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지만, 2000년대에 이미 3차 산업 비중이 2차 산업 비중을 능가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일반적인 경제성장 패턴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전반적인 경제성장 패턴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일련의 정책적 변화에도 기인한다. 먼저, 1980년대 중반 중국은 대대적인 농업 개혁을 통해 개인 농가가 농촌 집체와 계약을 맺으며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에 조달해야 하는 할당량도 축소되어 할당량 이상의 초과 생산량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농촌 가계소득이 상승하였다.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촌 가계에는 잉여 노동력이 창출되었고, 한편으로는 향진기업 등 농촌 소규모 공장의 운영이 허가되면서, 1차 산업의 잉여 노동력이 제조업 분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제조업의 급격한 성장이 지속되었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은 11.5규획 및 12.5규획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육성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0년대에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이 2차 산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동했다. 특히 3차 산업 종사자는 〈표 7〉에서와 같이 201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비중도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에 2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은 유지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고용의 변화는 〈표 8〉의 소유제로 구분한 기업의 고용 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 사유제 기업 운영이 허가되고 1993년 회사법 제정과 1995년 본격적인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의 종사자 비중은 점차 감소한 반면, 사유제 기업 종사자 비중은 증가하게 되었다.

〈표 8〉 소유제로 분류한 기업의 도시 근로자 수 및 비중

		1978	1990	2000	2010	2020
도시 취업자 수 (백만명)		95.1	170.4	212.7	346.9	462.7
국유기업	(백만명)	74.5	103.5	81.0	65.2	55.6
	(%)	(78.3)	(60.7)	(38.1)	(18.8)	(12.0)
도시 집체기업	(백만명)	20.5	52.5	15.0	6.0	2.7
	(%)	(21.5)	(30.8)	(7.1)	(1.7)	(0.6)
사유제 기업	(백만명)	0.2	6.7	40.5	123.6	319.6
	(%)	(0.2)	(3.9)	(19.0)	(35.6)	(69.1)
기타	(백만명)	-	7.7	76.3	152.1	84.7
	(%)		(4.5)	(35.9)	(43.8)	(18.3)

주: 1) 중국통계국은 1978년, 1990년의 취업자에 대해서는 국유기업과 도시집체기업을 분류하여 계수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인민망(人民网)에서 제공하는 도시 국유기업과 도시 집체기업 취업자수의 비중을 중국통계국에서 제공하는 취업자 수에 곱하여 저차 계산.
2) 1993년 제정된 회사법에 의해 국유기업들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전환이 되며 혼합소유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유제 기업에는 사영기업, 외국인 투자 회사, 개체호만을 포함하였고, 주식합작기업, 합작기업,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기타 기업으로 분류.
자료: 중국통계국, 인민망(人民网).

〈표 8〉은 소유제로 분류한 도시 내 기업의 근로자 수 및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며, 1978년에 9천 5백만명이었던 도시 근로자 수는 2020년에는 약 4억 6천만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78년 도시 근로자 중 국유기업과 집체기업과 같은 공유제 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99.8%였고, 사유제 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 도시 근로자 중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12.6%로 감소했고, 사유제 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69.1%로 증가했다. 특히, 1978년에는 도시 근로자 중 약 78.3%가 국유기업에 종사하였는데, 1990년에는 그 비중이 60.7%로 감소하였고, 1990년대 중반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해 2000년에는 38.1%, 2010년에는 18.8%로 더 빠르게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12%(5천 5백만명)만이 국유기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집체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역시 1978년 도시 근로자 수의 21.5%(2천만명)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0.6%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사유제 기업 종사자는 1978년에 2천명(0.2%)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억 2천만명(69.1%)이 되었다. 특히,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있었던 1995년 이후 사유제 기업 종사자 수가 급증하여 1990년 7백만명(3.9%)에서 2010년 1억 2천만명(35.6%)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사유제 기업 종사자의 증가와 함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시장 임금 체계가 형성되며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 종사자의 임금도 동시에 증가하게 되었다. 〈표 9〉에 따르면, 1978년에 209달러였던 도시

〈표 9〉 도시 비사유제 기업 종사자의 임금(연봉) 변화

		1978	1990	2000	2010	2020
도시 비사유제 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금액(달러)	209	447	1,127	5,398	14,118
	연평균 증가율(%)	-	(6.5)	(9.7)	(17.0)	(10.1)
도시 국유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금액(달러)	219	478	1,140	5,666	15,677
	연평균 증가율(%)	-	(6.7)	(9.1)	(17.4)	(10.7)
도시 집체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금액(달러)	172	202	754	3,547	9,944
	연평균 증가율(%)	-	(1.3)	(14.1)	(16.7)	(10.9)

주: 동 자료는 위안화로 표시된 자료를 「중국통계연간」(2022)의 환율데이터를 이용하여 달러로 변환한 것이고, 1978년의 환율데이터가 없으므로, 이용가능한 데이터 중 가장 1978년과 근접한 1985년의 환율데이터를 활용.
자료: 중국통계국, 「중국통계연간」(1995; 2022).

비사유제 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2020년에는 68배 증가한 1만 4천달러를 기록했다. 비사유제 기업 중 국유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상승 폭이 집체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상승 폭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1978년 도시 국유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219달러였으나, 2020년에는 72배 증가한 1만 7천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에는 각각 연평균 증가율이 9.7%, 17.0%를 기록하며 빠르게 상승했다. 이러한 임금의 상승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 교육 투자 증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이루어진 교육수준의 향상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임금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교육정책은 주로 기초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고등 교육 이수율이 매우 낮았다. 중국은 국가 수립 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국민에게 주로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문자 습득과 기본적인 산업 기술 교육을 보급하는 데 집중했다. 당시 공산당 당원 여부, 성별, 연공서열 등이 소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교육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교육수준이 향상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가계소득의 증가와 자녀 수의 감소였다. 이로 인해 자녀 한 명에 대한 교육 투자가 증가했다. 또한 1990년대부터 교육을 많이 받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교육받은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었다. 이는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이득이 커지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수준 향상은 노동시장에 많은 숙련 노동자를 제공하며, 다시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표 10〉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의 비중이 2020년에 3.7%로 감소하는 등 중국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198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교육 수준별 최종 교육 이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까지 이수한 인구 비중은 증가한 반면, 초등교육까지만 이수한 인구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의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고등교육(12년 초과)까지 이수한 인구 비중은 1982년 0.9%에서 2020년 18.8%로 21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상위 중등교육(10~12년)까지 이수한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10%에서 18.2%로 약 2배 증가했으며, 하위 중등교육(6~9년)까지 이수한 비율은 1982년 23.8%에서 2020년 38.6%로 약 1.6배 상승했다. 반면, 초등교육(6년)까지만 이수한 비율은 1982년 30.8%에서 2020년 20.8%로 감소했고, 정규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인구의 비중은 1982년 34.5%에서 2020년 3.7%로 급감했다.

개혁·개방 후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고등 및 상위 중등교육을 이수한 인구 비중은 개혁·개방 이후 약 4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초등교육 및 하위 중등교육을 이수한 인구 비중은 최근에 감소세를 보였다. 먼저, 개혁·개방 후 약 4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부분은 고등교육이었고, 특히 개혁·개방 12년 후부터 30년 동안(1990~2010년)까지 고등교육까지 이수한 비중이 급증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평균 10.7%로 증가했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8.9%로 증가했다. 둘째로, 초등교육까지만을 이수한 인구 비중은 1982년(30.8%)부터 1990년(43.2%)까지 개혁·개방 직후 약 10년간 증가했으나, 개혁·개방 10년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셋째로, 하위 중등교육을 이수한 인구 비중도 개혁·개방 후 30년까지는 증가했으나, 그 이후로는 감소하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표 10〉 교육 수준별 최종 교육 이수 비중

(단위: %)

	1982	1990	2000	2010	2020
고등교육(12년 초과)	0.9	1.7	4.7	11.0	18.8
		(5.4)	(10.7)	(8.9)	(5.5)
상위 중등교육(10~12년)	10.0	9.4	14.4	16.1	18.2
		(-0.5)	(4.4)	(1.1)	(1.2)
하위 중등교육(6~9년)	23.8	27.2	39.1	42.4	38.6
		(1.1)	(3.7)	(0.8)	(-0.9)
초등교육(6년까지)	30.8	43.2	32.9	24.1	20.8
		(2.9)	(-2.7)	(-3.1)	(-1.5)
정규교육 미이수	34.5	18.5	9.0	6.4	3.7
		(-5.1)	(-7.0)	(-3.4)	(-5.4)

주: 1) 위의 자료는 각 센서스 데이터에서 15세 이상 총인구 중 각 교육수준까지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고, ()는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2) 고등교육에는 전문대, 4년제 대학, 석박사 과정이 모두 포함.

자료: 중국 인구 센서스(2010:2020).

은 -0.9%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초등교육과 하위 중등교육을 이수한 인구 비중의 감소 추세는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을 반영하고 있다.

4. 내구재 소비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그 결과 가구당 내구재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1982년에는 도시에서조차 내구재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개혁·개방 약 10년 후인 1990년부터 약 20년 후 2010년까지 전통적인 전자제품의 보급이 가속화되었으며, 202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표 11>에 따르면, 세탁기의 보유량은 1982년 도시 기준 100 가구당 16.1대였으나 2020년에는 전국 기준으로 96.7대로 상당히 증가하여, 중국의 각 가구당 약 1대의 세탁기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냉장고의 보유량은 1982년 도시 100 가구당 0.7대였으나 2020년에 전국 기준 101.8대로 크게 증가하여, 중국의 각 가구당 보유하는 냉장고 수는 1대 이상이 되었다. 컬러텔레비전 보유량은 1982년 도시 100가구 당 1.1대였으나 2020년에는 전국 기준 120.8대로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의 각 가구당 보유하는 컬러텔레비전 수는 1대 이상이 되었다. 이처럼 도시 가구의 세탁기, 냉장고, 컬러텔레비전 보유량은 개혁·개방 10년 동안 특히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의 보유량은 1982년의 보유량의 각각 5배, 60배, 54배 증가하였다.

컴퓨터, 에어컨, 이동전화 같은 새로운 기술 제품과 자동차도 개혁·개방 약 20년 후인 2000년대부터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직후 약 20년 동안 가구 100호당

<표 11> 100 가구당 내구재 보유량

	1982		1990		2000			2010			2020
	도시 평균	도시 평균	농촌 평균	전국 평균	도시 평균	농촌 평균	전국 평균	도시 평균	농촌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자동차(대)	-	-	-	-	0.5	-	-	13.1	-	-	37.1
세탁기(대)	16.1	78.4	9.1	27.4	90.5	28.6	51.0	96.9	57.3	77.1	96.7
냉장고(대)	0.7	42.3	1.2	12.1	80.1	12.3	36.9	96.6	45.2	70.9	101.8
컬러텔레비전(대)	1.1	59.0	4.7	19.1	116.6	48.7	73.3	137.4	111.8	124.6	120.8
이동전화(대)	0	0	-	-	19.5	4.3	9.8	188.9	136.5	162.7	253.8
에어컨(대)	0	0.3	-	-	30.8	1.3	12.0	112.1	16.0	64.0	117.7
컴퓨터(대)	0	0	-	-	9.7	0.5	3.8	71.2	10.4	40.7	54.2

주: 1) 중국통계연감은 2020년에 대해서는 전국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 표에 2020년의 도시와 농촌 데이터 미포함.
 2) 중국통계연감은 1990년~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전국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제공하므로, 동 기간의 전국 평균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중 평균하여 저차 계산하였음. 다만, 1990년~2010년까지의 데이터 중 농촌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전국 평균값을 계산하지 않고 '-'로 표기함.
 3) 1982년에 대해서 농촌 내구재 소비 데이터의 부족으로 도시 내구재 보유량만 제시.

자료: 중국통계국, 『중국통계연감』(1990; 2020; 2023).

자동차 보유 수는 1대 이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자동차 소비가 급증하여 2020년에는 가구 100호당 37.1대를 보유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가 매우 일반화되었다. 컴퓨터의 경우 1997년부터 본격적인 소비가 시작되었고, 2020년에는 100 가구당 54.2대를 보유하여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컴퓨터를 보유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100 가구당 에어컨 보유량이 12대였으나, 2000년대부터 20년간 에어컨 소비가 급증하여 2020년에는 117.7대로 가구당 1대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동전화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소비가 시작되었으나, 이동전화 소비의 급상승으로 매우 빠르게 보급되어, 2020년에는 가구 100호당 253.8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5. 식량 및 보건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걱정에서 벗어나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단계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식품 영양에 있어서도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표 12〉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1978년에 8.8kg에서 2020년에는 61.6kg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소고기와 양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1978년에 0.3kg에 불과했던 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에는 6.7kg으로 약 40년간 22배 증가하며, 육류 중 가장 큰 소비 증가세를 보였다. 돼지고기 소비량은 1978년 8.1kg에서 2020년까지 약 40년간 4배 증가하여 36.0kg에 이르렀다. 비록 돼지고기 소비 비중은 1978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국 육류 소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닭고기 소비량은 1990년에 2.1kg였으나, 2020년에는 15.1kg으로 30년간 7배 증가했다. 양 및 염소 고기 소비량도 1978년 0.3kg에서 2020년 3.8kg으로 약 40년간 11배 증가했다. 이와 같은 육류 소비 증가와 영양의 질적

〈표 12〉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

(단위: kg)

Year	1978 (A)	1990	2000	2010	2020 (B)	(B)/(A)	
닭	n.a.	2.1	7.4	9.3	15.1	-	
소	0.3	1.0	4.0	4.2	6.7	22	
돼지	8.1	19.7	31.2	38.1	36.0	4	
양 및 염소	0.3	0.9	2.2	n.a.	3.8	11	
총 육류	소비량	8.8	23.7	44.8	54.6	61.6	7
	연평균 증가율		(8.6)	(6.6)	(2.0)	(1.2)	-

주: n.a.는 데이터의 이용 불가능함을 표시.
자료: FAO, Earth Policy Institute.

향상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 덕분이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더 다양한 고영양의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의사, 전문(보조)의사,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는 등 의료 시스템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보건수준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1980년 2.9명에서 2020년 7.6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진료보조 의사 수는 1980년 1.2명에서 2020년 3.0명으로 2.5배 증가하였으며, 간호사 수는 1980년 0.5명에서 2020년 3.3명으로 약 7배 급증하였다.

특히, 개혁·개방 직후 의료진 수가 부족했던 농촌 지역의 의료진 수가 크게 증가하여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농촌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와 진료보조 의사 수는 각각 3배 증가하였고, 간호사 수는 약 11배 증가하여, 도시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개선, 영양 상태의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표 14>에 따르면, 개혁·개방 약 10년 후인 1991년부터 약 30년 후인 2020년까지 모성 사망률은 약 1/4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1991년 신생아 10만명당 모성 사망률은 98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3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1991년 신생아 1천명당 영아 사망률은 42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6명을 기록하여, 동 기간 영아 사망률은 약 1/7로 감소하였다.

<표 13> 인구 천명당 의료진 수

	의사			진료보조 의사			간호사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1980 (A)	2.9	8.0	1.8	1.2	3.2	0.8	0.5	1.8	0.2
2020 (B)	7.6	11.5	5.2	3.0	4.3	2.1	3.3	5.4	2.1
(B)/(A)	2.7	1.4	2.9	2.5	1.3	2.7	7.1	3.0	10.5

주: 진료보조 의사는 단독으로 개업을 할 수 없고, 개업의의 지도 하에 개업 가능.
 자료: 「중국통계연감」(2023).

<표 14> 모성 사망률 및 영아 사망률

	1980	1991 (A)	2000	2010	2020 (B)	(B)/(A)
모성 사망률(신생아 10만명 당)	n.a.	98	65	35	23	1/4
영아 사망률(신생아 1천명 당)	47	42	30	13	6	1/7

주: 모성사망률 데이터는 1991년부터 사용 가능.
 자료: World Bank.

6. 공공서비스: 수도, 에너지 및 전력, 교통, 통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교통, 통신, 전기·가스·수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고, 물적 이동 및 인적 이동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등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공공서비스 중 수도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5>에서와 같이 연간 급수 총량은 1978년 101억톤에서 2020년 630억톤으로 약 6.2배 증가했다. 그 중 상수도 공급량은 1978년 39억톤에서 2020년 348억톤으로 9배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한 에너지 수요에 맞추어 에너지 공급량도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오염물질 발생이 비교적 많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인공가스의 공급량은 개혁·개방 초기보다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량 증가에

<표 15> 도시 공공서비스 사업

	1978	1990	2000	2010	2020
연간 급수 총량 (억톤)	101.1	382.3	469.0	507.9	629.5
생활용수량 (억톤)	39.1	100.1	200.0	238.8	348.5
용수보급률 (%)	n.a.	48.0	63.9	96.7	99.0
인공가스 공급량 (억m ²)	172.4	174.7	152.4	279.9	23.1
천연가스 공급량 (억m ²)	6.9	64.2	82.1	487.6	1563.7
액화석유가스 공급량 (억m ²)	n.a.	219.0	1053.7	1268	833.7
가스보급률 (%)	n.a.	19.1	45.4	92	97.9

자료: 중국통계국, 「중국통계연감」(2023).

<표 16> 교통로의 길이

(단위: 만km)

	영업중 철도	도로		민항로	국제항로	송유관	수로
		총도로	고속도로				
1980(A)	5.0	88.3	-	19.5	8.1	0.9	10.9
1990	5.3	102.8	0.1	50.7	16.6	1.6	10.9
2000	6.9	140.3	1.6	150.3	50.8	2.5	11.9
2010	9.1	400.8	7.4	276.5	107.0	7.9	12.4
2020(B)	14.6	519.8	16.1	942.6	382.9	12.9	12.8
(B)/(A)	3	6	160*	48	47	14	1

주: 고속도로 길이에 대해서는 (B)/(A)에 1990~2020년 간의 증가 작성.
자료: 「중국통계연감」(1999; 2022).

비하면 그 감소폭은 미미했다. 인공가스 공급량은 1978년 173억㎥에서 2020년 23억㎥로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 공급량은 1978년 7억㎥에서 2020년 1,564억㎥로 227배 증가했으며, 액화석유가스 공급량은 1990년 219억㎥에서 2020년 834억㎥로 4배 증가했다.

중국정부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꾸준히 주력해 왔으며, 그 성과는 매우 눈에 띈다. 특히 육상 및 항공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영업용 철도의 길이는 1980년 5만km에서 2020년까지 약 40년간 2.9배 증가하여 15만km에 달했다. 도로의 경우, 1980년 88만km였던 것이 2020년까지 5.9배 증가하여 520만km에 이르렀다. 고속도로 건설은 특히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에는 0.1만km에 불과했던 고속도로의 길이가 2020년까지 약 30년간 160배 증가하여 16만km로 대폭 확장되었다. 민항로의 길이는 1980년 20만km에서 2020년까지 48배 증가하여 943만km에 달했다. 이 중 국제항로는 1980년 8만km에서 47배 증가하여 2020년 383만km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송을 위한 송유관과 수로 등의 인프라도 확충되었다. 송유관의 길이는 1980년 9천km에서 2020년 13만km로 14배 증가했다.

통신 및 전기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증가하면서, 인터넷과 전기가 중국 인민에게 광범위하게 보급이 되었다. <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에는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2%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70%로 증가하여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2010년 중국 광대역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당 9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34명으로 증가하며 인터넷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보급의 확대는 휴대폰의 대중화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다. 휴대폰 가입자 수는 2000년 100명당 7명에서 2010년에는 64명으로 급증한 후, 2020년에는 121명으로 증가하여 폭발적인 보급률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전기 사용 가구 비율은 2000년에 97%였으나, 2010년과 2020년에는 100%에 도달하였고, 2010년부터 거의 모든 가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정 전화 가입자 수는

<표 17> 통신 및 전기의 사용

	1990	2000	2010	2020
인터넷 사용자 비중(%)		2	34	70
전기 사용 가능자 비중(%)		97	100	100
고정 전화 가입자(100명당)	1	11	22	13
휴대폰 가입자(100명당)	0	7	64	121
광대역 가입자(100명당)		0	9	34

자료: World Bank.

1990년 100명당 1명에서 2000년 11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휴대폰 사용의 증가로 고정 전화 사용자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7. 여가: 여행 및 영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의 생활수준이 향상하면서 여가활동도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명절 등 연휴를 활용하여 여행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중국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여행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빈도는 증가하여, 1995년에는 해외여행 횟수가 1년에 5백만회였으나 2019년에는 1억 6천만회를 기록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1995년에 중국인들의 국내 여행 횟수는 6억 3천만회였으나, 국내 여행 횟수도 2000년대부터 더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까지 약 10배 증가해 60억회를 기록했다. 또한, 도시 주민의 국내 여행 횟수가 농촌 주민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도시화와 함께 도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도시 거주민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해외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여가활동 외에도 다양한 현대적 여가활동이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태극권, 광장무, 마작 및 장기 외에도 영화 관람, 쇼핑, 운동 등의 여가활동이 새롭게 부상했다. [그림 4]는 중국 영화 산업이 급성장 하였음을 보여준다. 중국 영화 박스오피스는 2019년 기준 643억위안(한화 약 10조원)으로, 2007년 33억위안에 비해 19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 세계 극장가에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중국의 영화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인의 여가활동이 더욱 다양화되고, 문화 소비의 폭이 넓어졌음을 시사한다.

<표 18> 국내 및 해외 여행

(단위: 백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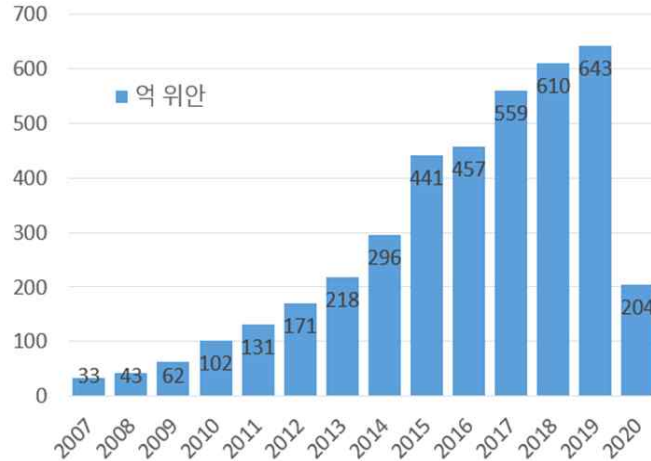
	국내여행			해외여행
	총계	도시주민	농촌주민	
1995	629	246	383	5
2000	744	329	415	10
2010	2103	1065	1038	57
2019	6006	4471	1535	155

주: 1) 2020년 코로나 상황은 특수상황이므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데이터 사용.

2) 한 사람이 중복 여행한 경우에는 중복 계수.

자료: 「중국통계연감」(2022).

[그림 4] 중국 영화시장의 박스오피스



III.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의 생활수준 변화 사례

본 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적 성과를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가상의 중국 인민의 생활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의 실제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 각 경제 및 사회적 지표의 변화가 가상 인물들의 생활상에 미친 영향을 묘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 19>에서와 같이 세 명의 가상 중국인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 가상 인물은 서로 다른 출생지와 성별, 나이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배경을 대표한다. <표 20>은 각 가상 인물의 연도별 연령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19> 가상 인물의 개인 정보

	가상인물 A	가상인물 B	가상인물 C
출생지	도시	도시	농촌
성별	남성	여성	남성
나이	70세	60세	50세

〈표 20〉 연도별 가상 인물의 나이와 당시 주요 사건

	가상인물 A	가상인물 B	가상인물 C	주요사건
2024년	70세	60세	50세	
2014년	60세	50세	40세	
2004년	50세	40세	30세	
1994년	40세	30세	20세	- 1995부터 국유기업 구조조정 - 2001년 WTO 가입
1984년	30세	20세	10세	- 1982년 인구정책(한 자녀 정책)
1974년	20세	10세	출생	- 1979년 개혁·개방 - 1980년대부터 대학 재개
1964년	10세	출생	-	
1954년	출생	-	-	

1. 가상인물 A: 70세 도시 출생 남성

가상의 인물 A씨는 1954년 도시에서 태어난 남성으로,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를 모두 경험한 세대이다. 그의 삶을 통해 개혁·개방 전후의 생활을 대조해 봄으로써 개혁·개방이 중국 인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씨는 계획경제의 실패를 겪으며 10대 시절 극심한 기근을 경험했다. 20대에는 문화대혁명을 겪으며 대학 교육의 기회를 잃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도시의 국유 인쇄 공장에 취업했다. 개혁·개방 이후 학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고민했으나, 부모님과 형제들의 권유로 국유기업에서의 근무를 지속했다.

1990년, 입사 15년 차가 된 A씨의 연봉은 약 430달러로 입사 초기보다 약 2.5배 증가했으나, 1980년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했다. 26세에 결혼한 A씨는 한 자녀 정책으로 자녀는 한 명이었으나, 아이의 분유, 기저귀, 장난감 등 출산 후 추가 지출로 인해 생활고를 겪었다. 이에 A씨는 주말 근무와 야근을 더 많이 하기로 했다.

중국은 1995년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A씨가 일하던 인쇄 공장은 소규모이면서 재무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고, A씨는 41세에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3년간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을 받았고, 1999년에 성공적으로 소규모 사영 출판사에 취업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업 교육을 받는 3년 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받으며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의 월급으로 생활을 버텼다. 비록 3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9년부터는 사영 출판사에서 약 1,300달러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더욱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A씨가 47세가 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였고, A씨가 일하는 출판사의 사업이

잘되기 시작했으며, 그의 월급도 1,70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는 그동안 구매를 미뤄 놓았던 컬러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도 구입했다. 또한 2005년에는 조금씩 저축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계약하였다. 2014년에 60세였던 A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부동산 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현재 70세인 A씨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1년에 국내 여행을 2~3회 다니고 있으며, 해외 여행도 2년에 1회 다녀오는 등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

2. 가상인물 B: 60세 농촌 출생 여성

가상의 인물 B씨는 1964년 농촌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이 여성은 10대 때 개혁·개방을 경험한 인물이다. B씨는 부모님이 농촌 집체에 할당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동에 동원되던 시기에 태어났다. 그녀는 10대 시절까지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며 자랐다. 또한, 그녀는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고 노동에 동원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인 1980년대에는 농촌 집체에 할당되는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조달량 이상의 농산물에 대한 가격의 일부가 시장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B씨는 1년에 4번(300g)밖에 먹지 못했던 소고기 요리를 8번 정도(600g)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농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집체 농업에 B씨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B씨와 가족들은 그녀의 도시 취업 문제를 의논하였다. B씨는 드디어 1988년에 24세의 나이에 선전 룡화에 있는 Foxconn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도시로 이주한 B씨는 많은 이주 청년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990년에 B씨는 26세에 도시에서 결혼한 후 자녀를 출산했으나, 일을 지속하기 위해 자녀 양육을 농촌에 있는 부모님께 부탁드렸다.

2000년에 36세가 된 B씨와 남편은 연간 약 1,000달러의 수입을 얻게 되었고,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에는 고향 주변 도시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월세로 소득을 얻는 등 소득원이 다양해졌다. 2010년에 B씨가 46세가 되었을 때 자녀는 선전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자녀 역시 선전에서 취업하여 자녀와의 왕래를 더욱 자주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에서 여성의 은퇴 시기는 중국 전국 평균 은퇴시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여성은 2019년에 55세의 나이로 은퇴하게 되었다.

은퇴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B씨는 2024년 현재 6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소비보다는 저축을 위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10대 시절 농촌에서 살았을 때와 비교해 세탁기와 냉장고 덕분에 가사 노동이 편해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1년에 2회 이상 국내 여행을 하며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3. 가상인물 C : 50세 도시 출생 남성

가상의 인물 C씨는 1974년 도시에서 태어난 남성으로, 개혁·개방 이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의 인물이다. C씨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개혁·개방이 시작되었다. 그의 부모님은 국유기업에 종사하며 교육에 열성적이었다.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 덕분인지 C씨는 1994년에 국내 우수 대학에 입학했고, 1999년에 25세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한 후 민영 무역회사에 취업하였다. 그리고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7세에는 결혼을 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회사의 실적이 크게 증가했고, C씨는 이를 기회로 삼아 2004년 30세에 자신이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를 창업하였다. 2000년대 중국의 경제 붐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C씨의 무역회사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C씨는 다른 지역의 관련 기업 및 공장과 사업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동이 잦았는데 2010년대 부터는 고속도로와 고속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주요 도시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직원들과 통화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물론, 대외적인 영향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C씨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C씨는 아세안 국가들로 무역 판로를 확장하며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모색하며,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포착했다.

한편, C씨는 자신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최대한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자녀 교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덕분인지 2022년에 그의 외동딸이 우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C씨는 과거보다 사업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자녀가 일류 대학에서 석사 학위도 받으며, 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50세가 된 C씨는 현재 그의 부인과 자동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다. C씨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며, 2013년부터는 매년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고 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잠시 여행을 중단했으나, 코로나 완전히 종료된 2024년에는 이미 해외 여행을 한 차례 다녀왔으며, 올해 국내 여행도 두 차례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들을 이용하여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성과를 제시하였고, 개혁·개방 성과의 종합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앞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중국 인민의 생활을 재구성하여 묘사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장기간 지속된 경제 고성장은 다양한 경제사회 지표들을 빠르게 개선시켰다. 먼저, 경제 지표 중 중국 도시와 농촌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 변화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1978년 대비 각각 19배와 23배 증가했다. 또한 1978년에는 92%에 달했던 농촌의 절대 빈곤 인구 비중이 2020년에는 0.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득의 상승은 내구재 소비를 빠르게 증가시켰고, 2000년대부터 자동차, 세탁기, 에어컨, 이동 전화 등 다양한 품목의 내구재로 소비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임금 격차의 증가와 노동 소득 외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접근성 증가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는데, 지니 계수가 0.47에 도달한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구조도 고도화되어 2000년대부터는 3차 산업 취업자 수가 2차 산업 취업자 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급진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한 이후, 중국의 사유제 기업 종사자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국유기업 종사자 비중의 약 2배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 사유제 기업 종사자가 증가하며 점차 시장에서 임금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게 되었다. 도시 비사유제 기업의 임금도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연평균 17%와 10%로 상승하며 2020년에는 1978년 대비 68배 증가하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사회적 지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다. 먼저, 1인당 연간 육류 소비가 1978년에 8.8kg에서 2020년에는 61.6kg으로 증가하여 식생활에서 영양이 개선되었다. 또한, 중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1980년 2.9명에서 2020년 7.6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질이 향상되어, 개혁·개방 약 10년 후인 1991년부터 약 30년 후인 2020년까지 모성 사망률은 약 1/4로 감소하고 영아 사망률은 1/7로 감소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 간접투자의 증가로 1978년에서 2020년까지 상수도 공급량은 9배 증가하였고, 천연가스 공급량은 227배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는 0.1만 km였던 고속도로의 길이가 2020년까지 약 30년간 161배 확장되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2000년에는 2%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70%로 대폭 증가하였고, 전기 사용 가구 비율은 2000년 97%에서 2010년과 2020년에는 100%에 도달하여 거의 모든 가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여가활동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국내 여행 횟수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배 증가하여 60억회를 기록하였고, 수교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증가해 온 해외 여행 횟수도 1995년부터 2019년까지 3배 증가하여 1억 6천만회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서술한 바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사회경제적 지표 모두 빠르게 개선되었다. 이처럼 개혁·개방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표 21>에서와 같이 2020년에는 개혁·개방 초기보다 소득, 산업 구조, 고용, 의료, 영양, 보건, 공공서비스, 여가 등에서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북한도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명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1>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 주요 지표

지표	1978년 (A)	2020년 (B)	(B)/(A)
도시 1인당 실질 가계 소득(위안)	2,276	43,363	19.1
농촌 1인당 실질 가계 소득(위안)	750	16,948	22.6
농촌 절대 빈곤 인구 비중(%)	92 (1981년)	0.1	-
지니 계수	0.317	0.47	1.5
2차 산업 종사자 비중(%)	17.3	28.7	1.7
3차 산업 종사자 비중(%)	12.2	47.7	3.9
사유제 기업 종사자 비중(%)	0.2	69.1	345.5
도시 비사유제 기업의 임금(달러)	209	14,118	67.6
1인당 연간 육류 소비(kg)	8.8	61.6	7.0
인구 천명당 의사 수(명)	2.9 (1980년)	7.6	2.6
모성 사망률(신생아 10만명당)	98 (1991년)	23	0.2
영아 사망률(신생아 1천명당)	47 (1980년)	6	0.1
기대수명(세)	63.9 (1979년)	77.9	-
상수도 공급량(억톤)	39	348	8.9
천연가스 공급량(억m ³)	6.9	1,564	226.7
고속도로 길이(만km)	0.1 (1990년)	16.1	161.0
인터넷 사용자 비중(%)	2 (2000년)	70	35.0
전기 사용 가구 비율(%)	97 (2000년)	100	1.0
국내 여행 횟수(백만회)	629 (1995년)	6,006 (2019년)	9.5
해외 여행 횟수(백만회)	5 (1995년)	155 (2019년)	31.0

주: 1) 위 표는 2장의 주요 수치들을 정리한 표임.
2) 1978년 혹은 2020년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각 년도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데이터를 제공.

북한도 2014년부터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5·30조치)’을 통해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동 조치는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단위의 경영 자율권을 일부 확대하고, 농업의 생산 및 분배에 대한 분조를 소규모로 축소하여 농민들에게 노동의 인센티브를 더욱 많이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무역에 보다 개방적인 제도적 변화를 추진한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개혁·개방의 수준과 범위 면에서 북한의 과거 일련의 개혁 조치들보다 더 진전된 형태라고 평가된다.⁵⁾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와 법적·제도적 노력은 2016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2013년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서 2021년까지 설립하기로 계획된 29개의 경제 개발구 중 단 하나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대외무역은 급속히 감소하였고, 북한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산업생산은 급격히 침체되었고, 경제성장률은 연속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시장 거래와 같은 북한주민의 비공식 경제활동 및 주민 생활 여건이 악화되었다.⁶⁾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김정은 정권은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개혁·개방의 길에 나선다면, 북한은 주변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이 중화권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대외적인 지지를 충분히 받았던 것처럼, 북한도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적극적인 투자와 대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험했던 만큼 혹은 그 이상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내외적 정치 상황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북한이 실제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고, 추진된다 해도 그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경제·사회적 지표를 크게 개선시켰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하여, 북한 변화의 잠재적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중국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성과를 예측하고, 북한 주민의 실생활이 소득, 고용, 소비, 보건 및 영양, 여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의 경험을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⁵⁾ 이석기 외(2018), 양문수(2017).
⁶⁾ 이석 외(2021).

참고문헌

- 이석 외,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KDI 연구보고서, 2021.
-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017, 26.2: 81-115.
-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1~335.
- 홍정륜, 「중국 빈곤퇴치 정책의 명과 암」, 인문사회 21, 2021, 12.5: 2579~2590.
- 중국통계국, 「중국 인구 센서스」, 2010; 2020.
- 중국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0; 1995; 1999; 2001; 2006; 2009; 2011; 2013; 2016; 2020; 2022; 2023.
- FAO, “FAO Statistical Yearbook”.
- NAUGHTON, Barry J. “The Chinese economy: Adaptation and growth,” Mit Press, 2018.
- UNDP, “China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 〈웹사이트〉
- Earth Policy Institute, “Data Center”(https://www.earth-policy.org/data_center/).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